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소식

제 6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승택 편집인 이재근 주소 제주시 중앙로14길 15-6 | 064)727-0617 | www.jejuregen.org

‘한 여름밤의 꿈’

지면안내

02~03 원도심 인터뷰
책 친구가 생기는 집 ‘우생당’

04~09
원도심 탐구

10~11 도시재생의 이해
주민이 만들어가는 창신송인 도시재생

12~13 원도심 관찰일기
탐라문화광장

14~16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책 친구가 생기는 집

원도심의 터줏대감 서점, '우생당'

서점은 사색의 공간이다. 만남의 장소이며 문화 놀이터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피난민, 특히 문화 예술인들이 제주로 이주해 오면서 각종 서적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서점들이 속속 개업했다.

제주시 원정통(현재 관덕로)을 중심으로 문화서점, 제주서림, 제주일섬, 동남서점, 동아서점, 신우서점, 신창사 등이 문을 열면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특히 관덕로에는 제주를 대표했던 서점 4곳이 나란히 자리해 서점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제주서림과 제일서점은 나중에 중앙로로 자리를 옮겨 영업을 했으나 문을 닫았고, 문화서점은 중앙로가 생긴 뒤 없어졌다. 6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생당 서점은 꾸준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며 한결같이 한 곳에서도민들의 문화생활을 지키고 담아 온 곳, 원도심의 터줏대감 서점, '우생당'의 고지훈 대표를 만나보았다.



1970년대 학생들이 우생당서점 앞에서 교과서와 방학책을 사기 위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다. (제주시 발간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중)

Q. 안녕하세요, 우생당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할아버지께서 1950년대 후반부터 관덕로 주변에서 서점과 출판사를 같이 운영하셨어요. 일반서적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지정 판매소로 인기를 받아서 초·중·고 교과서를 공급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책 자체도 인기품이었고 문방구류를 포함한 교육용품도 함께 취급해서 새학기에는 특히 많은 학생들과 도민들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당시 문예인들의 동인지 발행도 같이 하시고 간간이 동호인들이 모여서 시낭송회나 문학의 밤 같은 행사를 열었다고 해요.

서점이자 문화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하다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할

머니 혼자 서점만 운영하셨어요. 1970년대부터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장남인 아버지와 함께 운영을 하셨어요. 이 건물은 아버지께서 1980년대에 지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Q. 우생당은 무슨 뜻인가요?

A. 한자로 벗 우(友), 날 생(生), 집 당(堂)이고 '책을 벗 삼아 친구를 만드는 곳'이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께서 지으셨어요.

Q. 우생당은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운영상황은 어떤가요?

A. 저는 2007년에 다시 제주로 돌아와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2010년부터 본

격적으로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온라인 서점의 유통 때문에 도내 서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죠. 중앙로의 제주서림, 용담로 터리의 용담서점, 인화동의 삼우서점 등 중대형서점들이 문을 닫았고 탐라서점이나 아가페서점 등은 이도지구, 아라지구, 신제주 등 신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서 원도심 지역에서는 우생당이 유일한 서점이 됐죠.

모바일 서적까지 일반화되면서 서점의 운영상황이 아주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제주는 육지에 비해 괜찮은 편이에요. 유명 브랜드의 대형서점이 없고, 제주 사람들은 아직 서점에 와서 책을 사주세요.

저희는 건물도 오래됐고 인테리어도 낡았지만 한 자리에 계속 있다보니까 원도심에서 젊은 날을 보냈던 어르신들이 꾸준히 찾아주세요. 조천이나 함덕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시장보러 나왔다가 일부러 들러서 책도 한두권씩 사주세요. 서울에 살지만 제주에 올때마다 들르는 단골고객도 있고요, 육지분인데 서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서 오래된 서점이라고 해서 와봤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하상가 사장님들도 자주 오시고, 일 50~100명 정도 방문해주시는 덕분에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Q. 최근에 작은 책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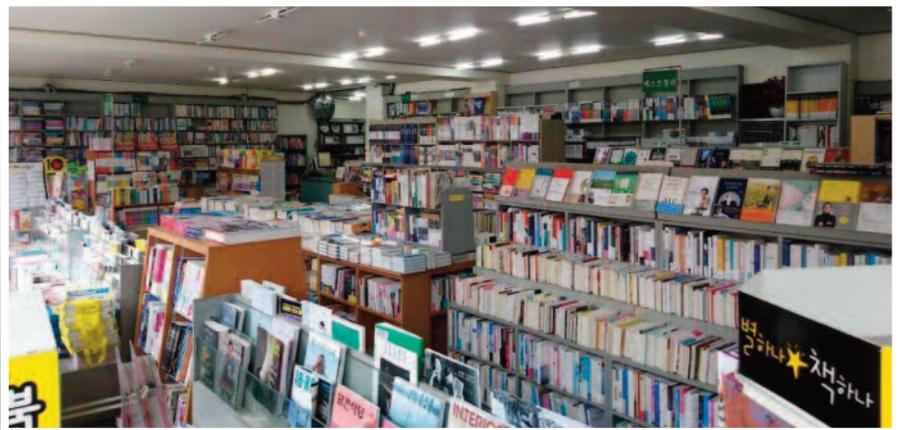
A.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개성 있는 서점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죠. 저희는 중형서점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과 도매영업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매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관덕로도 많이 변했잖아요. 곳곳에 특색있는 상점들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다양해지

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진 책방이나 상점들을 보면서 우리도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Q. 원도심과 우생당이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시나요?

A. 원도심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많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2층에는 전문서적, 외국어서적 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책을 매개로 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든,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도민들에게는 물론이고 여행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담담히 해나가야겠죠.



동네책방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원도심의 매력적인 동네 책방들을 소개합니다



미래책방

관덕로에 새로 생긴 독립출판서점 책방 인데...
 예전 식당 간판이 그대로, 기존의 건물구조를 활용한 내부 인테리어까지 주인장의 감성이 묻어난 빈티지한 느낌의 책방. 독특한 건물 입구가 눈길을 사로잡는 미래책방은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아직 책의 종류는 적은 편이지만 제목이 특이나 인상적인 책들로 구성이 알차다. 추억의 타자기, 원고지부터 사무용품까지 다양한 소품들도 구경할 수 있다.

주소 제주도 관덕로 4길 3
 전화 010.3656.1753
 시간 12:00~20:00 (목 쉽)

라이킷

칠성로상점가에서 탐라문화광장으로 가는 길에 자리한 아끼운 동네책방. 소규모 출판물 위주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과 그림책, 해외서적 등 특색있는 서적들이 비치되어있다. 주인장이 엄선해서 골라놓은 재치있는 책들을 구경해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아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소품들은 훌륭한 선물이 될 것 같다. 한편에 마련된 무료 나눔 공간에서는 제주도를 소개하는 다양한 소책자와 스티커 등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서점 옆 작은 공간에는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다.

주소 제주도 칠성로길 42-1
 전화 010.3325.8796
 시간 11:00~20:00 (수 쉽)

딜다책방

오랫동안 비어있던 원도심 공간에 작년 초봄 문을 연 동네 책방이자 문화예술콘텐츠 기획사.
 동화작가 겸 디자이너와 마케터가 꾸려나가는 이곳은 그림책이 특히 많다. 중고 책과 장난감도 있어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막 보기도 하고,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동네 놀이터 같은 책방이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책상 위에는 제주도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제주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낸 책, 드로잉 책, 컬러링 북, 에세이, 입체 미니북 등 눈으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책이 중심이 되는 체험과 교육, 전시 등이 종종 열린다.

주소 제주도 삼성로 1길 1
 전화 064) 723.4441
 시간 10:00~18:00(일 쉽)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의 공세 속에서도
이색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며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원도심의 동네 책방들이 있다.



에이팩토리 커피앤북스

지난 6월, 탑동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 에이팩토리는 ‘에이팩토리 커피앤북스’라는 북카페로 변신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자유롭게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총 3층 규모의 에이팩토리 커피앤북스는 어느 북카페와 달리 전국의 이름난 독립서점들과 손을 맞잡았다. 제주 독립서점인 ‘라이킷’과 독립출판물을 발행하는 ‘씨워드’가 함께한 ‘씨워드 워드 라이킷’, 여행을 테마로 하는 서점 ‘사이에’를 비롯해 아동서적 전문서점 ‘노랑우산’,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서점 ‘베로니카 이펙트’, 독립출판물 ‘스토리지 북앤필름’ 등 총 10여 곳에 달하는 독립서점과 함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국 곳곳의 독립서점을 돌며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림책부터 마니아를 위한 추리소설, 실용서적, 독특한 개

성을 가진 독립출판 서적 등 기존 북카페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2,000여 권의 방대한 서적 큐레이션을 완성했다. 서가는 독립서점 별로 정리되어 있다. 덕분에 취향 따라 책을 쉽게 고를 수 있어 좋다. 독립서점의 서가 외에도 아라리오 뮤지엄의 공간도 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라리오뮤지엄의 미술 도록이 잔뜩 마련돼 있다. 지금도 여전히 1층에는 커피 향이 퍼지고, 갓 구워낸 빵들이 준비돼 있다. 은은한 커피 향을 맡으며 책을 읽고 있으면 여름 피서지가 따로 없다.

주소 제주도 탑동로 11
전화 064) 720.8222
시간 09:00~22:00

책+방 서사라

큐레이션 서점?! 주인장이 엄선한 한 종류의 책만을 판매하는 특이한 책방. 책방이면서 아티스트 레지던시인 책+방 서사라는 정기적으로 테마를 정해 한 권의 책을 선정한다. 책이 선정된 스토리를 풀어내는 전시와 다양한 모임도 흥미롭다. 작가의 전시도 돕고 기획도 하면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작업을 하며 문화와 소통하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수없이 쏟아지는 책들 가운데 가치있는 책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단 몇 권의 책만을 골라서 소개하고 추천하고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그들이 추천할 책들이 기다려진다.

주소 제주도 서사로 13길 7
전화 010.9977.8469
시간 13:00~20:00(월 쉼)

맘껏 쉬고 노는 건강한 제주 어린이

제주북초등학교,
'맘껏 놀자' 선포식

제주도가 유니세프와 함께 아동비만 줄이기 캠페인에 나섰다. 7월 18일, 제주북초등학교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서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해 '맘껏 쉬고 노는 제주 어린이를 위한 맘껏 놀자 선포식'을 열었다. 제주도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협약을 통해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와 함께 모든 제주도민이 건강하게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도록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과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현장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비만 줄이기'를 공약으로 정했다"며 "놀이문화 확산은 건강한 제주의 미래,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북초등학교 학생들은 선포식이 끝나자마자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굴렁쇠를 굴리고 족구를 하며 뛰어놀았다. 이날 제주북초등학교에는 맘껏 바닥놀이판 3개가 설치되었는데 학생들과 원지사는 맘껏 바닥놀이판을 두드려 붙이고 함께 놀이 체험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진규 학생대표는 "할일은 하고 함께 놀며 건강하게 자라겠다"고 말했다. 양한별 교사대표는 "즐겁고 건강한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가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광문 학부모대표는 "약 40년 전에 제주북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맘껏 놀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칭찬하며 사랑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100년도 넘은 제주 최초의 학교에 맘껏 놀이터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제주 어린이가 맘껏 쉬고 놀 권리를 보장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맘껏 바닥놀이판은 제주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한천초, 일도초, 광양초 등 도내 8개 초등학교와 클린하우스 주변, 탐동광장, 해변공연장, 이호테우해변, 천지연폭포 등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공간 이아,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주민 교육프로그램 개강

오는 8월 21일부터 11월까지 예술공간 이아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아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는 현대미술 작가들이 주민들과 만나 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 교육을 넘어 작가와 주민들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창작활동에 참여하고, 입주 작가들은 주민들이 현대미술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협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전시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몸의 움직임과 소품을 이용한 상황연출을 통해 몸의 언어를 체험하고 몸짓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도록 하는 '몸, 움직임 워크샵', 나무의 특성과 다양한 공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보는 '목공수업', 사진에 대해 이해하고 참가자들이 작가로서 시리즈 사진작품을 창출하여 사진 전시회를 가질 '사진 아카데미',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이 한라산의 생태계에 관한 다양한 소재와 예술기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한라산이라는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는 '만들명 놀



명, 나의 한라산'의 결과물은 작가와의 협업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예술공간 이아 T.064.800.9333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이렇게 멋진 그림책'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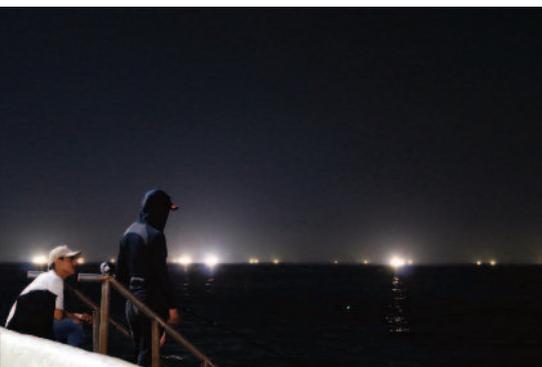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그림책갤러리 제라진에서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글 없는 그림책으로 유명한 이수지 작가의 전시가 열린다. 작가의 대표적인 '그림자 놀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파도야 놀자', '이렇게 멋진 날' 등의 그림책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설치물과 그림책 프린트가 전시된다. 작업실을 옮겨놓은 듯한 작가의 방, 나만의 그림자놀이 극장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8월 12일,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이렇게 멋진 날'의 색종이 우산 만들기 진행되며 8월 26일, 9월 23일 오후 2시부터 '그림자 놀이'의 그림자 인형 만들기가 진행된다. 문의.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T.064.757.2014

비아아트, '신기영 민화전_축복' 열어

비아아트는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기영 민화전-축복'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주 여성의 삶과 그들의 소망을 담은 어머니 시리즈의 민화 작품 5점과 일월오봉도, 십장생도, 책가도 등 신기영 작가의 민화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신기영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하고 201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민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궁중민화에서 서민민화로 작품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그의 작품은 민화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미의 사물을 더해 은유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민화는 우리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현실적인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지는 그림이다. 누구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에 주목한 작가의 작품 활동이 기대된다. 문의. 비아아트 T.064.723.2600



한여름 밤의 탐동 산책은 ‘일종의 습관’



♫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몸도 마음도 지치는 한여름 밤에는 탐동으로 가야 한다. 한여름 밤 탐동 산책은 오랫동안 원도심리들에게 내려온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다.

‘여름밤에는 탐동이지.’

한낮의 땀별이 조금은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후덥지근한 기운이 남아있는 골목으로 퇴근하다 보면 어쩐지 가슴이 뻥뚫리는 곳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공기 속에 묘한 두근거림이 느껴진다. 무슨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설레는 느낌. 이럴 때 집에만 있을 수 없지. 나는 청춘이고 지금은 근사한 여름밤이니까.

많은 친구들은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매일 해질녘 바다를 보고 한라산을 다람쥐처럼 오르며 전복을 철근처럼 씹어먹는 줄 알고 있다. 효리언니처럼 부자면 나도 그러고만 싶은데(영영) 현실은 집과 일터만 왕복 진자운동하는 삶이다.

‘아니 그래도 말이야 제주도인데 어쩔 바다 갈 짬이 없담. 내가 이러려고 제주에 살고 있나’하고 자괴감이 들 때면 가까운 탐동 바다에 산책을 간다.

시원한 바다 바람과 활기 넘치는 사람들 너머로 산책을 하다보면 물밑듯 찾아왔던 지침과 불안감이 조금 가라앉기도 한다. 이곳은 일종의 ‘마음 방파제’인 셈이다.

나처럼 산책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탐동은 밤공기가 뜨듯해지면서부터 도시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된다. 회 센터의 불빛은 밤새도록 빛나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탐동을 찾는다. 킥보드를 타는 꼬마부터 농구하는 청소년들, 바닷바람을 맞으며 맥주 한 잔씩 하는 젊은이들과 낚시하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가 함께 공존한다.

제주에 전 연령층이 이처럼 어우러진 공간이 또 있을까. 각자의 방식으로 삶과 여유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공간, 딱히 광장문화랄게 없는 제주에서 탐동은 광장의 미래를 제시한다. 이미 이곳에서는 버스킹하는 아티스트와 푸드트럭, 이따금 해변공연장에서 근사한 공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광장문화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름밤, 가족과 친구들, 연인과 함께 찾은 이 젊음이 넘치는 공간에 대한 기억이 어찌면 이미 우리 삶을 살짝 풍요롭게 하는 길지도 모른다. 가까운 바다에서 축적한 신남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도시 전체를 생기 있게 바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도처 해있을 때 제주인들에게 문화향유는 삶에 깊숙이 물드리라. 마치 탐동이 우리 삶에 그러하듯이.

원도심 속 피서지 ‘탐동’

탐동은 오래전부터 원도심리들에게 익숙한 도심 속 피서지였다. 나에게도 탐동은 가장 가까운 바다이자 매년 여름마다 보낸 추억들이 가득한 장소다. 어릴 적에는 사촌들과 친척들끼리 자주 찾았던 탐동. 이제는 기억도 안 나지만 마음속에는 굉장히 포근하고 행복했던 그 밤의 공기가 생생하다. 요즘도 탐동은 그 예전처럼 신나고 활기가 넘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다를 나누고 운동을 하고 음악을 듣는 탐동의 여름밤. 폭폭 쩌는 무더위에 지치는 여름이지만 우리에게겐 탐동이, 시원한 맥주가 그리고 함께 하는 이들이 있기에 조금은 괜찮지 않은가. 오늘의 여름밤이 당신계도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금의환향, 원도심 키즈

중앙로 현대약국 맞은 편 골목(옛, 두목 골) 초입에 작은 카페가 생겼다.

‘COMPLEX COFFEE’

옷가게 옆 모퉁이에 새로 생긴 이 곳은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두 평 남짓 작은 공간이다. 홀과 주방이 분리되지 않았고 스탠딩 좌석과 커피머신이 한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가격 또한 너무나 착했다. 커피를 내리는 옛된 주인장은 이 건물에서 나고 자란 원도심 키즈이다. 올해 5월에 문을 연 이 카페 건물이 주인장이 중학교 입학 전까지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그는 2011년 대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제과제빵학교로 진학했다. 이 후 서울에 있는 한 로스터리 카페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커피의 세계에 빠졌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가지게 된 직업과 타향살이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고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잠시 커피를 놓게 되었다. 이 후 본업을 중단하고 홀연히 1년간 택배기사를 했었는데, 커피에 대한 간절함이 마음 속에 있다는 확신이 섰다고 한다.

택배기사를 하며 모아둔 돈으로 고향 제주, 어릴 적 살았던 동네 원도심에 두 평 남짓한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인장은 아직도 이곳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지금도 눈에 선한 아카데미극장 풍경, 중앙성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겨 주던 흰색 강아지, 장난감 구경을 위해 하루에 한번은 꼭 방문했던 인천문화당 등 짙은 향수를 남겨주었던 우리 동네에

서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의 어릴 적 원도심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고향 동네에서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고 싶어 주방과 홀, 좌석을 구분하지 않고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찾아주신 고객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착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그는 너무나 추웠던 어느 겨울, 유럽여행 중에 만난 작은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마셨던 커피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추운 밖에서 마셔야했던 커피지만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얼었던 온몸이 다 녹는 듯 했다고 한다. 그 기억으로 커피의 맛을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제 개업한지 2~3달 남짓이지만 저렴한 커피값 덕분에 젊은 사람들은 물론 중,장년층들도 이 카페를 많이 찾아 주신다고 말하며 매우 행복해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욕심내지 않고 나 혼자 먹고사니즘 정도만 해결하면서 소박하게 장사를 하고 싶다는 그는 카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추가적인 사업 계획도 구상 중에 있다.

어릴 적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창신송인 도시재생



서유림 공동체 코디네이터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2014년 5월 선도지역 선정으로 시작된 창신송인 도시재생이 어느덧 4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창신송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뉴타운 해제지역

창신송인 지역을 몇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자면 뉴타운 해제지역이자, 봉제마을이며, 성곽마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이 뉴타운을 해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패션 산업의 기반이 되는, 미싱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마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양 도성에 접하여 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성곽마을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담아 주거환경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인 봉제 재생,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자원화라는 목표를 창신송인 도시재생의 주요 방향으로 하여 약 1000억원 규모, 25개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행 및 통행 안전을 위한 '안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지역 봉제산업의 거점인 '봉제역사관 조성', 지역 예술가인 백남준 작가와 창신동을 기억하는 '백남준 기념관', 5분 생활권의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사업 진행

어느 도시재생 지역에서나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일 것입니다. 창신송인 역시 그러했는데, 특히 뉴타운 사업지역이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와 주민 - 행정 - 전문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이 시작되는 시점인 2014년 7월부터 현장에 지원센터가 설치,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신송인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참여는 진행과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때는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주민협의체는 동별로도, 행정과 센터와도 함께 끊임없는 회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의 실현과정에서도 관심 있는 주민들이 다시 모여 계획부터, 공사의 감독, 이후의 운영까지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 전문가 사이에 수많은 의견 차이는 계속 있습니다. 때로는 주민 간의 의견차이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시작하게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위해 도시재생의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창신송인의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교육과 공모사업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주민활동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초기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조금이라도 쉽게 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면, 상담을 통해 이웃과 해보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재생과 지역에 대한,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부터는 도시재생의 사업과 이어지는 분야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에 따라 집수리교육, 도시재생해설사교육과정, 공동이용시설 운영준비과정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삶터, 일터, 놀이터의 가치 형성의 다양한 활동

도시재생의 과정을 통해서 창신송인을 삶터, 일터, 놀이터로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많은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놀이터를 사용자에 맞게 고쳐보고자 하는 지역 어린이의 워크숍들도 진행되었고, 지역의 여러 단체와 주민들이 진행하는 축제이자 장터인 '꼭대기 장터'도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대학과 지역 봉제공장이 함께 한 학기 실습 스튜디오를 통해 디자인, 제작, 전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0일, 창신동에 백남준 기념



백남준 기념카페 '창신1동 공간기획단'



도시재생해설사

관이 개관하였습니다. 백남준 기념관은 계획수립 단계의 자원조사를 통해 백남준과 창신동의 관계를 발견하고,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제안하며 시작된 사업입니다. 건축계획과정에서 설계자, 행정과의 논의 끝에 기념관의 일부 공간은 커뮤니티 카페로 조성하여 주민이 직접 운영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창신1동 공간기획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시니어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커뮤니티 카페의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는 13명의 주민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며, 그 중 일부는 백남준 기념관의 주민 도슨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8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주민들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공간이기도 하며, 시낭송회, 회의 등도 열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가을부터는 도시재생해설사의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창신승인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해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도시재생해설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을 걸어 홍보를 하자, 그 어떤 사업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역사문화 자원 외에도 도시재생의 과정, 지역 내 공동체 자원 등에 대한 교육과 매시간의 발표과제, 필기, 실기 시험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14명의 주민들이 도시재생해설

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가 지역 내에 있고, 주변에도 학교들이 많은 만큼 학교들과 연결한 교육프로그램도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역 청년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지난해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지역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청년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게를 찾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홍보와 유도를 이어온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을미디어 회사를 창립하여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역 잡지도 제작하고 청년들을 위한 공유공간을 직접 조성하는, 아주 적극적인 주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도시재생활동가로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원센터나 지역 활동 단체에 근무하면서 재생의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경험을 쌓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청년층을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6명, 그 중 2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하였고, 올해에는 총 7명, 그 중 4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아버지는 주민협의

체, 딸은 도시재생활동가로 또는 어머니는 도시재생해설사, 아들은 도시재생활동가로 활동하는 가족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창신승인은 올해 12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이 종료됩니다.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부터 마중물 사업 기간이 지나면 지역중심의 자생적인 활동을 하는 방향을 공유해왔고, 지난 2월부터 이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주민중심의 지역사회를 통해 도시재생으로 구축된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속적 활동을 진행하고자 지난 5월 11일, '창신승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도시재생은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 전문가가 함께 힘을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은 있지만 지역의 가치를 다시 찾고 자원을 발굴하며, 새로운 지역자산을 만드는 과정이 도시재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제주의 도시재생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날의 탐라문화광장

그리고 우리의 일상

2017. 7. 25
정오

🕒 12:00

- 정오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탐라광장에는 보행자들이 없음
- 해변탑 화단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임



🕒 12:10

- 건너편 동문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자 횡단보도를 건너와 중앙로 방향으로 걸어감



🕒 13:00

- 수경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짐
-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물줄기를 바라보며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더위를 잠시 식히고 있음



🕒 12:55

- 더위에 지친 강아지가 산지천에 몸을 담그며 시원한지 꼬리로 물장구를 칩



🕒 12:52

- 전망대에 오르면 산지천과 제주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2017. 7. 25
저녁

🕒 19:30

- 해가 지자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 저녁 공기를 쉼으로써 여유를 즐김



🕒 19:35

- 산지천 물과 바닷물이 만난다는 엄마의 말에 연신 '우와'를 연발하는 귀여운 아이



12:19



- 나무 그늘 아래에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힘들어하며 쉬고 계심



12:24



- 할아버지와 산책 나온 강아지도 더위에 몹시 지친 모습임



12:33



- 탐라문화광장 인근의 주차자들이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 중간에 쓰러져 자고 있음



12:51



- 산짓물 공원 산책로를 자전거가 지나감. 그늘이 없어서 그런지 보행자들은 산책로 가장자리로만 걸어다님



12:44



- 구)유성식품, 금성장, 녹수장 옆의 자치경찰 초소 부스를 한 여성이 한가롭게 걸어감



12:40



- 북수구 광장 주변에는 보행자는 없고 차량만 일렬로 주차되어 있음



19:54



- 야간 분수쇼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임



20:00



- 야간 수경분수가 조명과 함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킴.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신기한지 발을 동동 구르며 즐거워 하는 아이들



사람이 커 보이는 제주를 만들어 갑니다

2017 제주 도시재생대학, 1기 수료생 15명 배출



제주 도시재생대학 1기 과정이 마무리됐다. 도시재생대학은 향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지난 3월, 공동이론과정 참여 모집부터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건축, 사회적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 교육을 진행했던 공동이론과정과 전문가 자문, 팀별 논의, 벤치마킹 답사 등 팀의 목적에 맞게 운영했던 문제해결과정까지 총 12주의 공식과정이 마무리되었다. 도시재생대학 공동이론과정을 수료하고 문제해결과정 프로젝트 팀을 꾸린 역사문화스토리텔링팀과 지역경제활성화팀은 5월 31일부터 8주간 매주 3시간 이상 원도심에 대해 고민하고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했다. 역사문화스토리텔링팀은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관덕정을 중심으로 한 옛 길을

테마로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잊혀져가는 역사, 문화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조선 비운의 왕으로 제주에서 생을 마감한 광해군의 애달픈이 서려있는 길, 최초 신성여학교 교장선생과 무근성 피난민들의 이야기 등 성안의 옛 스토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요인으로 손색이 없었다. 지도교수인 양진건 교수(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 센터장)와 김진철 박사(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연구원)의 조언과 지도로 원도심 구석 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 엮어가는 방법을 공유했고 스토리텔링 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도로명 주소에 옛 길 명칭의 혼용 표기와 유배인의 적거지, 성터 등의 표석의 관리 철저 및 당시 그림을 첨부하여 이해 폭을 강화하고 스토리의 연계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향후 과제로 내놓기도 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팀은 원도심 쇠퇴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주 인구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유휴 공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방향을 고민했다. 유휴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3주간의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7명으로 구성된 팀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으며 지도교수인 고태호 박사(제주연구원)의 자문과 지도로 합의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주민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생각이 달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물이 나왔다. 원도심의 주 정주층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증가하는 노년 인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센터’ 사업계획서를 수료식 당일 발표했다. 도시재생대학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주체적인 주민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7월 19일 예술공간 이아에서 ‘2017 제주 도시재생 대학 문제해결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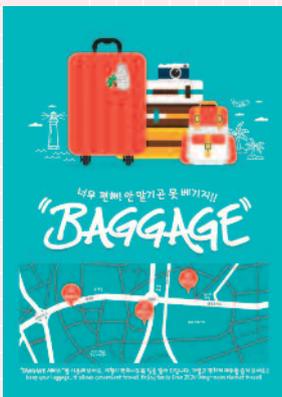
참여한 주민들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사업별 운영협의체의 역할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의 가능성과 구체성을 탐구하며 아이디어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시범사업 운영을 바라기도 하였다.

이승택 센터장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열심히 참여해주신 주

민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에 녹아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문제해결 과정을 수료한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보다 전문화된 활동가 양성과정(퍼실리테이션)을 운영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짐 두고 편안하게 여행하세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공모사업 본격 진행



지난 6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께 모여 ‘손심영 고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인 멘도롱또뜻은 7월부터 캐리어 등 여행객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문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동문시장 인근 상점 3곳(오렌지트리호텔 & 카페, 카페브릿지16, 라운지)과 협약하여 짐 보관대를 설치하였다.

또 지역의 영세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의 홍보 지원을 위한 ‘행복부스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멘도롱또뜻 우진호씨는 “주민협의체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역 주민과 이주민들의 협력 커뮤니티 개발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동문시장 인근 상점 3곳(오렌지트리호텔 & 카페, 카페브릿지16, 라운지)과 협약하여 짐 보관대를 설치하였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 추진



센터는 북초등학교 박희순 교장 및 교직원, 삼도2동 부녀회원, 방과후 교육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선진지 답사에 나섰다.

학교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금북초등학교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평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세대별 돌봄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은평교육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함께한 북초등학교 교직원과 무근성마을 주민들은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학교 안과 밖의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는 한 마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제주시 원도심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소외된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야 하는이가 없도록 어린 시절부터 마을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몸에 익혀가는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이다.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 후 교육, 특성화 교육, 돌봄 서비스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가 학부모나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영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지역 파트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난 7월 19일, 제주도 도시재생지원

엄마가 간다!

삼도2동 부녀회 주민협의체 본격 활동 시작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1단계 활동 중이던 삼도2동 부녀회가 2단계 세부주민협의체로 등록하고 도시재생사업 참여주체로 나선다. 이미 원도심 내 대소사를 챙기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온 삼도2동 부녀회는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로서 어떤 활동 요소가 필요할지,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공유공간사업 기획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

여한다. 7월부터 2주에 한번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유공간 기획 및 활용방안, 조성계획,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동네 공방체험, 마을상품개발, 중고물품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콘텐츠 연구 및 교



육을 진행할 것이며 원도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